

# 제1회 전북IT산업 기술교류회 개최

### 전북IT산업협회 - 콘텐츠융합진흥원, IT 기술 협력 강화 · 최신 기술 동향 소개

전북IT산업협회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공동주최한 '제1회 2024 전북 IT 산업 기술교류회'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전북 지역 IT 기업 간 기술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고, 최신 IT 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전북IT산업협회와 (재)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공동주최한 '제1회 2024 전북 IT 산업 기술교류회'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개최되었다.

전북IT산업협회는 기존의 광역 자치단체 및 관내 ICT진흥기관이 주도하여, 일부 제한된 위촉 기업들로부터의 자문을 확보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전북IT기업들 스스로의 협력과 기술교류는 물론, 지역산업발전에 필요한 IT 관련 정책 개발 등을 진흥기관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북 최초의 민간 IT 분야 법인단체이다.

한 공동 노력을 약속하였고, 이번 기술교류회를 시작으로 협회와 진흥원은 상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행사는 전북 지역 IT 업계 종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전북IT산업협회 소개, 전북 지역 주요 IT기업 최신 기술 및 혁신 프로젝트 발표, IT 산업 기술 트렌드와 사례를 다룬 강연 등으로 구성하여 진행

되었다. 특히, 이번 교류회에서는 미디어 콘텐츠와 생성형 AI 기술의 최신 동향과 미래 전망 등의 주제로 심도 있는 강연이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하는 최신 트렌드와 실무 적용 사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활발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전북IT산업협회 라정진 협회장은 "이번 교류회를 통해 최신 IT 기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고, 전북 지역 IT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전북 IT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콘텐츠융합진흥원 김성규 원장은 "이번 교류회는 전북 지역 IT 산업의 성장과 협력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전북IT산업협회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도모해 전북IT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전문건설업체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애를 다지고 화합을 도모하는 만남의 장이 열렸다.

## '우애 · 화합 도모하는 만남의 장'

### 전건협 전북, '제4회 회장배 회원사 친선 골프대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전문건설업체 임·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애를 다지고 화합을 도모하는 만남의 장이 열렸다.

대한전건협 전북특별자치도회장(회장 임근홍)이 회원사의 건강증진과 상호교류를 위해 지난 21일 군산컨트리클럽에서 도내 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임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회장배 회원사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임근홍 회장은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업체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인사말을 건네고 "오늘 이 자리가 회원사간 정보교류와 친목의 장이 되어 현재 처한 건설산업의 불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회원사간 친선과 소통의 마중물이 되어 더욱더 단결하고 화합하는 협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협회는 부단히 노력한 결과 울초 전문건설업 보호구역을 2억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전건협 전문건설업체 대표 및 임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회장배 회원사 친선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임근홍 회장은 "전문건설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업체 임·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인사말을 건네고 "오늘 이 자리가 회원사간 정보교류와 친목의 장이 되어 현재 처한 건설산업의 불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회원사간 친선과 소통의 마중물이 되어 더욱더 단결하고 화합하는 협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도회는 전북자치도와 긴밀한 업무공조로 전문건설공사 수주물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김옥기 기자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10년 연도별 항공사진 누리집 공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지역의 변화와 발전 과정을 알리기 위해 지난 10년간 촬영된 연도별 항공사진을 누리집에 등록·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수집·편집해 연도별로 구성한 것으로, 새만금개발청 누리집(www.saemangeum.go.kr) 내 '새만금 소개 소식·새만금 공간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민들은 이번에 공개되는 항공사진을 통해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새만금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확장과정(1·2·5·6공구, 8.1km), △수변도시(6.6km), △농생명용지(94.3km), 환경생태용지 1단계(0.7km), △초입지(1km), △동서도로(16.47km), △남북도로(27.1km), 신항만 방파제(3.1km),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등의 새만금개발의 성과와 방향을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립준공 토지에 대하여 지적 신규등록 709만1,000㎡(축구장 989개 면적, 약 210만평), 건축허가 110건(연면적 110만㎡)을 처리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 국민연금 · 외환당국, 외환스왑 한도 500억달러 증액 합의

### 기존 350억달러서 기금의 해외자산 증가 등 반영해 상향

국민연금공과 외환당국은 올해 말까지 500억달러로 외환스왑 거래 한도를 증액하기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두 기관(국민연금, 외환당국)이 외환스왑 거래 한도를 증액한 것은 기

금의 해외자산 증가 등을 반영해 환헤지 비용 상향 시 헤지수단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12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환헤지 비율 조정(9%~10%)을 2024년까

지 연장했다. 국민연금은 필요시 5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외환당국을 통해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다.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하며, 조기상환 권한 역시 이번에도 양측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 /김옥기 기자

## '안전 문화 정착' ... 농어촌공 전북, 합동 소방훈련 실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지난 20일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전주완산소방서 서부119안전센터와 소방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재발생 시 비상 대응 수칙을 체득할 수 있도록 가상 훈련 상황을 발령하여 유사시 대응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본부 내근 전 직원이 참석한 이번 훈련에서는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인한 각종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화제에 대한 기초 수단인 소화기 사용법, 화재의 초기진화, 직원들의 대피와 구조 및 반출 등으로 진행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지난 20일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전주완산소방서 서부119안전센터와 소방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예방 및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반기마다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정문 본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화재와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 전건협 전북 '운영위원 친목 · 화합의 장' 성료

대한전건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20일 세종필드 GC에서 회장단·운영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 친목 · 화합의 장'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

이번 행사는 협회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운영위원 상호 간 화합을 위한 친선행사를 진행하고 협회 주요 업무 동향을 설명했다.

소재철 회장은 "주요 건설재의 수급불안과 가격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지만 우리 건설업계의 현안 과제인 품셈 및 일위대가 현실화를 통한 적정공사비와 적정공기 확보를 위한 발주처 관행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조금이라도 나은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회원 간의 화합과 급변하는



대한전건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20일 세종필드 GC에서 회장단·운영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 친목 · 화합의 장'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다.

법과 제도에 대한 교육과 강연 등을 수시로 제공해 임직원 역량 강화를 통한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건설시장 정상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도내에 시행중인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한층 더 강도 있게 추진하여 회원사 일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